

# 밤을 새워도 좋다...모두가 대~한민국

## 한국-브라질전 새벽 응원 나서는 시민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예선을 뚫고 브라질과의 16강전에 나섬에 따라 광주지역에서도 새벽 응원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새벽 4시 경기입에도 응원을 하기 위해 일부 직장인들은 탄력근무제를 이용하거나 연차까지 사용하고 응원에 나섰다. 광주대예선 모교 출신 조규성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며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진다.

광주경찰은 브라질전이 열리는 6일 새벽 4시 광주에서 예정된 대규모 응원전은 없다고 밝혔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서포터즈 '붉은악마'도 광주지역에서 단체 응원을 계획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광주에서도 이번 월드컵을 응원하는 지역민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특히 16강전이 열리는 시간인 새벽임에도 친구 또는 직장 동료끼리 '삼삼오오' 모여 집이나 식당 등지에서 한국의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전이 펼쳐졌다.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동근(30·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6일 새벽 브라질전을 앞두고 야근을 선택했다. 5일에 야근한 시간만큼 6일 늦게 출근하는 탄력근무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이씨는 5일 저녁 8시까지 야근한 뒤 새벽 경기를 실시간으로 관람하고 6일 오전 11시에 출근할 예정이다. 새벽 4시 경기라는 점에서 모두 함께 모여 경기를 직관할 순 없지만 지인들과 월드컵 응원 단체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응원한다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이씨는 "다음날 피곤하겠지만 실시간 경기를 놓칠 수 없다"면서 "브라질 상대라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라며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알람을 맞춰 쉼 없이 일어나 응원할 것이다"고 했다.

연차까지 사용하는 직장인도 있다. 광주 광산구에서 살고 있는 김형석(42)씨는 "월드컵 본선에 오르는 한국경기를 직접 보는 것이 얼마나 많았냐"면서 "일에 지장을 주느니 차라리 연차를 사용하고 맘 편히 응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새벽시간임에도 지인들과 모여 응원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다.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안홍민(23·광산구 신장동)씨도 이번 응원전에 지

## 직장인 수요일 연차 내고 자영업자들 온 가족 동원 '새벽 영업' '조규성·나상호 모교' 광주대·금호고 응원전...영화관 축구 중계

인들과 모이기로 했다. 안씨는 "포르투갈에 질 것으로 생각해 16강 진출을 포기했었는데 극적인 역전골로 이긴 것을 보고 이번 브라질전도 기대하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꺾으며 축구강국임을 증명해 MZ세대들이 월드컵으로 함께 모치고 있다"고 웃었다.

상황이 이렇자 영화관에서도 응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CGV는 광주금남로, 광주터미널, 광주점단 3개 지점 총 8개관에서 6일 새벽 3시부터 한국-브라질전을 중계한다. 5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관람석(1019석)의 절반 수준인 450여명이 예매했다는 것이 CGV측의 설명이다.

자영업자들도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면서 분주히 새벽 영업에 나섰다. 가족들이 동원되거나 늦은 경기시간에 맞춰 기존보다 마감시간을 늦추기까지 한 것이다.

광주시 동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조현욱(여·59)씨는 원래 새벽 3시에 영업을 끝내지만 6일 축구경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마감을 늦출 예정이다. 영업시간도 늘고 업무량도 많으니 힘들겠다면서도 조씨의 입가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구 쌍촌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광숙(54)씨도 닭 재고를 50% 이상 준비하는 등 가족들이 전부 나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박씨와 박씨의 처남이 배달일을 돕고 박씨의 아내와 여동생

은 주방 일손을 돕기로 했다. 중학생 딸은 주문전화와 앱 주문을 받기로 하는 등 말 그대로 온 가족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박씨는 "대한민국 축구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새벽 4시여도 월드컵 특수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조규성 선수의 모교인 광주대와 나상호 선수의 모교인 금호고에서도 응원전이 펼쳐진다.

광주대는 6일 새벽 4시경 28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호심관 소강당에서 응원전을 펼치고 금호고는 축구부원들끼리 한데 모여 휴게실에서 함께 응원할 계획이다.

광주대 관계자는 "이번 경기에서도 조규성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를 한 번 더 빛내주기를 바란다"면서 "후배들이 열심히 응원하는 마음이 현장에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눈치밥 먹겠네 5일 신안 암태도의 추수가 끝난 논에서 백로떼가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철새들이 조류독감(AI)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남서도 회복 지원 가능

### 여가부 상담소 확대 운영

전남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맞춤 상담과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현재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으로는 전남을 포함 충남, 세종, 울산 등 4곳이다. 전남에서는 (재)전남여성가족재단이 운영을 맡게 됐다.

2021년부터 시작된 특화상담소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 2명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의료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치유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연계해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미 운영중인 광주 특화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 운영)에서는 다수의 피해촬영물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요청해 유죄 영상물 점검(모니터링)과 삭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또 수사기관 방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와 함께 고소장 접수와 진술동행을 하고, 방대한 양의 피해 증거 자료를 정리·수사기관에 제출해 빠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과도 있었다.

/천홍희 기자 strong@



## 전남대 '천원의 아침밥' 계속 된다

### 이용객 증가에 예산 조기 소진...발전기금 1600만원 추가 투입

전남대에서 8년째 운영 중인 '천원의 아침밥' 예산이 조기 소진돼 대학 측이 발전기금을 추가 편성했다.

전남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건강밥상) 예산이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소진돼 1600만원의 대학 발전기금을 추가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2015년 당시 자병문 총장이 "학생들이 아침에 건강한 밥을 먹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 시작된 8년째 이어오고 있다. 학생들이 1000원을 내고 학교가 대학발전기금에

서 1000원을 지원해 '2000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다가, 2018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지원으로 '3000원짜리 아침밥'으로 음식 질이 높아졌다.

연 이용객은 2018년 4만7000여명, 2019년 3만8000여명에 달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강가의 실시되면서 2020년 1만2000여명, 2021년 2만7000여명으로 이용객이 다소 줄었다.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대면 강의 부활 등 등교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올해는 이용객이 5월 기준 3만

2000여명까지 다시 늘어났다.

전남대는 올해 대학 발전기금 3000만원, 농정원 지원금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 예산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광주캠퍼스 제1학생회관 식당, 화순캠퍼스(의대) 여미샘 식당 2곳에서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자 대학발전 기금을 급하게 추가 편성하게 된 것이다.

내년에 용봉캠퍼스 2학생회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운영 장소가 1곳 더 늘어나 자급난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수시로 예산이 소진돼 지정기탁금을 받는 등 어렵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해 왔다"며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건강한 아침밥을 먹고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 더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공영주차장 요금 18년만에 인상

### 시간당 2000원으로 42% 오를 듯

광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이 18년만에 내년부터 40% 이상 인상된다.

광주시는 주차장 금지 조정 및 요금 체계 개선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를 위해 현재 1급지 기준, 시간당 요금을 현행 1400원에서 조정 후 2000원(42.85%)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광주는 2004년 이후 18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이 동결됐고, 민영 주차장과 비교해도 요금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공영주차장 요금을

40% 가량 인상해 현실화해도 전국 특·광역시 공영주차장 평균 요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주차요금 부과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기본(최초 30분)요금에 15분 마다 요금이 추가됐지만, 변경후에는 기본 요금도 최초 10분으로 변경되고 10분마다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광주시 '주차장 금지' 구분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1·2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한 구도심 위주의 토지이용별 금지 체계에서 도시철도 1호선 및 2호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급지(시간당 800원~1300원), 3급지(600원~950원) 주차요금도 58~62%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체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3층  
공: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